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금동아미타불좌상의 조성과 의미

정진영*

- I. 머리말
- II. 두 상의 조성시기 검토
- III.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 조합의 의미
- IV. 맺음말

I. 머리말

경주의 동쪽, 토함산 기슭에 자리한 불국사에는 신라 통일기에 조성된 금동불상 두 구—금동비로자나불좌상, 금동아미타불좌상—가 있다. 이 두 상은 존상의 성격에 따른 손 모양의 차이만 있을 뿐, 신체비례, 착의법 그리고 얼굴의 표현이 거의 같다. 때문에 같은 시기, 동일 인물에 의해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도 1, 2).

특이한 점은 첫째, 각 불상의 수인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권인, 아미타인의 전형과 반대로 좌, 우 양손을 결하여 비로자나불상은 유례가 드문 左拳印을, 아미타불상은 유례가 없는 逆阿彌陀印을 짓고 있다.¹ 둘째, 역할과 성격이 전혀 다른 비로자나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졸업

¹ 현재 학계에서는 좌, 우 양손이 반대로 된 지권인의 형상을 '左拳印'이라 부른다. 반면, 아미타불상의 손 모양은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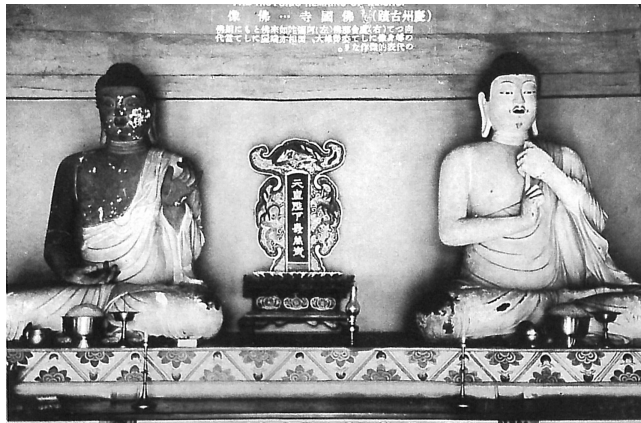
도 1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상높이 177cm (©문화재청, 『한국의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 I-1』, 2009, p. 390)

도 2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좌상, 9세기, 상높이 166cm (©문화재청, 『한국의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 I-1』, 2009, p. 391)

[Vairocana]와 아미타[Amitabha]가 서로 짝이 되어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한국 불교미술 가운데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 조합의 예는 경상북도 영주시 비로사의 대적광전에 나란히 안치된 두 구의 석조불좌상과 불국사의 두 불상, 단 2건만이 확인될 뿐이며, 두 존상을 함께 조성하였다는 기록 또한 남아있지 않다. 결국, 매우 특수한 도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불국사의 경우, 현재 비로자나불상은 비로전에, 아미타불상은 극락전에 각각 따로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각상이 독립적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봉안처를 제작 당시의 원봉안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 비로자나불상은 1900년대 대웅전→극락전→비로전의 순으로 적어도 2차례 이상 이동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1920~30년대 촬영된 사진에서 위축전(現 극락전)내 나란히 봉안된 두 불상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도 3).² 때문에 두 불상을 하나의 세트로 보는 전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내에선 아직까지 확인된 예가 없고, 정해진 명칭 또한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필자 임의로 ‘逆阿彌陀印’이라 칭하고자 한다. 한편, 아미타불상의 수인을 8세기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여러 부처에게 구분 없이 사용된 통인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8세기 중국과 일본에서 제작된 석가모니불상 혹은 노사나불상의 몇 예가 불국사 불상의 수인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불국사 불상의 존명 재고 가능성이 언급되었다(서지민, 『통일신라시대 화엄계 불상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pp. 167-172).

² 1903년 비로자나불상은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었다. 關野貞, 姜奉辰 역, 『韓國의 建築과 藝術: 東京帝國大學 韓國



도 3 1930년대 극락전에 함께 봉안된 두 불상의 모습 (©부산박물관, 『사진엽서에서만난』관광명소, 2008, p. 128)

불국사 불상의 주재료는 금동이다. 높이 약 180cm에 달하는 통금동으로의 제작은 지속적인 경제력과 권력을 요구하며, 나이가 높은 조형적 완성도는 조성주체 혹은 발원·후원자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가늠케 한다.³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불국사가 일부 연구자들의 견해대로 왕실사찰이라면 분명 불상 제작에 신라 왕실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⁴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李德弘(1541~1596)의 『東京遊錄』(1580)에는 ‘절 문을 들어서니 金堂과 石塔,

建築調査報告』(서울: 産業圖書出版社, 1990), p. 115; 關野貞, 『韓國建築調査報告』(東京大, 1904), p. 64; 1925년 대웅전 보수공사로 인해 극락전으로 옮겨져 아미타불상과 함께 봉안되었다. 朝鮮總督府編, 조원영 역, 『佛國寺와 石窟庵』(민족문화, 2004), p. 78; 1973년 불국사 복원공사를 통해 비로전 중건이 완공되자 비로전으로 이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금동불상의 제작에는 고가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후원자의 경제력, 숙련된 기술력, 풍부한 경험과 조직화된 노동력, 설비시설 등이 모두 요구된다. 통일신라 대형 금동불 제작에 관한 연구로는 정부미, 『栢栗寺 金銅如來立像을 통해서 본 통일신라시대 대형 금동불製作技法』, 『미술사학연구』255(2007), pp. 5-33.

4 불국사의 창건주체에 관해서는, 김대성 중심의 김씨 일가를 위한 願刹로 보는 견해, 김대성에게 위임된 국가사업, 즉 國刹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불국사의 공사규모 및 김대성 사후 국가에서 이를 이어 완공하였다는 『三國遺事』의 기록을 근거로 國刹說을 따르고자 한다. 또한 2편의 중수문서,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1024),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1038)에 기록된 742년의 착공연대가 경덕왕의 즉위년과 일치하고 있어 창건의 배후에 경덕왕의 존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 불국사를 김씨 일가의 願刹로 본 연구로는 황수영, 『불국사와 석굴암』(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pp. 62-83; 김상현, 『石佛寺 및 佛國寺에 表出된 華嚴世界觀』, 『신라화엄사상사연구』(민족사, 1991), pp. 197-198; 南天祐, 『石佛寺』(一潮閣, 1991), pp. 8-9 및 pp. 81-87; 남동신, 『천궁(天宮)으로 서의 석굴암(石窟庵)』, 『미술사와 시각문화』13(2014), p. 86; 國刹로 본 연구로는 李基白, 『古代 政治思想』, 『韓國思想大系』Ⅲ(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9), pp. 44-45; 高裕燮, 『高裕燮全集』2(통문관, 1993), pp. 200-201.

古佛과 新畫가 천태만상으로 기괴하였는데, 모두가 신라의 유적이었다. 내가 정중립에게 말하기를, “신라왕은 민력을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다 소비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古佛이 두 불상을 지칭하는지에 관해서는 검토가 요구되지만, 불국사 경내 유물에 미친 신라 왕실의 영향력 확인에는 참고가 된다.

그렇다면 불국사의 두 불상은 어떤 이유에서 비로자나와 아미타라는 ‘이례적인 조합’으로 그것도 ‘독특한 도상’을 차용하여 조성된 것일까? 비로자나가 아미타와 함께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언급한 두 가지 특이점 가운데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 조합’이라는 문제에 주목하여 불국사 불상 조성에 얽힌 비밀을 풀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의문, ‘반대로 된 수인’에 관한 연구는 도상의 성립이 경전상의 의궤뿐 아니라 신앙의 형태, 조형적 필연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불국사 불상만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광범위한 문제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좌권인의 불상 대부분이 원봉안처, 출토지, 조성배경 등이 불명확하고, 더불어 인도 및 중국에서 드물게 조성되었다는 점은 연구에 어려움을 만든다. 때문에 좌, 우 양손을 왜 반대로 결하고 있는지, 그 연유를 밝히는 일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이 글에서는 불국사 불상의 형식적, 양식적 정의를 위한 하나의 특징으로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끝으로 논의의 전개를 위해 불상의 조성시기를 검토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물론 조성 시기에 관한 연구는 많다. 하지만 그 견해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말까지 매우 다양하여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필자는 8~9세기에 제작된 불상과 형식, 양식 비교를 통해 두 상의 제작시기를 추정하고, 나아가 8세기 중반 경덕왕(재위 742~765)대를 기점으로 유행한 화엄학의 성격을 통해 과연 8세기에 비로자나불상이 조성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왕경 ‘경주 불국사에 봉안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려 한다.

II. 두 상의 조성시기 검토

1. 형식 및 양식적 특징

불국사의 두 불상은 얼굴 및 옷 주름 표현에 있어서 도식화의 경향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석굴암 본존불(751~774년경)보다는 이후의 시기, 즉 8세기 후반에서 멀게는 9세기 후반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⁵ 연구자들 사이에서 약 100여년 이상의 의견차가 생겨난 이유는 신라 통일기의 불상 중 정확한 기년을 가지면서, 형식, 양식 비교가 가능한 불상이 9구에 불과

할 뿐 아니라, 9세기의 불상들이 서로 닮은 듯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불상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각 불상의 조성주체, 제작지 그리고 무엇보다 주재료가 갖는 표현상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분명 형식, 양식상의 공통점은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긴 이등변삼각형의 신체비례’, ‘얼굴의 양감 및 耳目口鼻의 과장’, ‘반대로 된 수인’ 등이 9세기 불상의 특징으로 정의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불국사의 두 불상이 공유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로자나불상은 상 높이가 177cm, 무릎 폭 135cm이며, 아미타불상은 상 높이가 166cm, 무릎 폭 123cm이다. 두 상 모두 어깨 뒷면에 광배를 연결했던 결쇠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작 당시에는 광배, 대좌가 함께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상 자체의 보존 상태는 매우 훌륭한 편이다. 신체는 유독 허리를 강조하여 길게 표현하였으며, 무릎 폭이 좁고 머리가 작아 정면에서 보았을 때 긴 이등변삼각형을 이룬다. 이처럼 상체가 긴 장신화된 신체 비례는 9세기 중엽을 시작으로 등장하여 9세기말부터 10세기 초까지 꾸준히 제작되는데, 중국 당말 폐불기 이후의 불상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⁷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두툽고 당당한 어깨, 잘록한 허리, 볼륨감 있는 가슴과 배의 표현은 통일기 신라 하대의 대표 불상,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65),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7년경),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9세기 중반)과 일치하는 특징이기도 하다(도 4, 5, 6).

얼굴의 표현도 주목할 만하다. 불국사 두 불상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사각형이며 양감이 강조되어 통통한 인상을 준다. 육계는 둥글면서 넓적하고, 눈두덩이, 볼, 광대 그리고 삼도는 부은 듯 살이 올라 있다. 입술은 좌, 우, 턱 중앙 부분에 흠이 파여 있으며, 인중 부분은 두 겹게 돌출되어 강조되었다(도 7). 이와 같은 과장된 양감 표현은 석굴암 본존불상의 자연스러운

5 불국사 불상의 제작시기를 8세기 후반으로 본 연구로는 金元龍, 『한국미술사』(汎文社, 1968), pp.212-213; 秦弘燮, 『韓國의 佛像』(一志社, 1976), pp.251-252; 황수영, 앞의 책, p.101; 張忠植, 『韓國佛敎美術의 密敎의 要素』, 『韓國密敎思想研究』(동국대학교출판부, 1986), p.506; 강우방, 「한국비로자나불상의 성립과 전개-원용의 도상적 실현-」, 『미술자료』44(1989); 郭東錫, 『금동불』(예경, 2000), pp.190-193; 9세기로 본 연구로는 문명대, 『佛國寺 金銅如來坐像二軀와 그 造像讀文(碑銘)의 研究』, 『미술자료』19(1976), pp.1-16; 김리나·이숙희, 『統一新羅時代 智拳印 毘盧遮那佛像 研究의 爭點과 問題』, 『미술사논단』7(1998), pp.227-263; 최성은, 「나말려초 아미타불상의 圖像의 고찰」, 『강좌미술사』26(2006), pp.213-234.

6 ① 감산사 미륵보살상(719) ② 감산사 아미타불상(720) ③ 석굴암 본존불상(751-774년경) ④ 갈항사지 석불좌상(758) ⑤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상(766) ⑥ 보림사 비로자나불상(858) ⑦ 동화사 비로자나불상(863년경) ⑧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865) ⑨ 축서사 비로자나불상(867년경)이 있다.

7 최성은, 위의 논문, pp.219-225.



- 도4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865년, 상높이 91cm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자료집 6, 경상북도, 2016, p. 158)
- 도5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867년경, 상높이 110cm (©문화재청, 『한국의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Ⅱ-2』, 2009, p. 178)
- 도6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9세기 중반, 상높이 103.9cm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자료집 6, 경상북도, 2016, p. 162)







도7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얼굴 (©문화재청)

덩어리감과 비교되며 후진 양식으로 설명되어 왔는데,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9세기 중반), 실상사 철조여래좌상(9세기 중반),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9세기 중반)의 얼굴 표현과 유사하다(표 1).⁸ 절반 정도 뜬 눈은 꼬리 부분만 위로 살짝 올라가 있으며, 눈썹은 융기된 라인으로 양각되었다가 눈두덩이 부분에서 다시 음각되고, 코끝과 이어지면서 정확한 Y자형을 그린다. 콧등은 칼로 베어 낸 듯 평평하고 콧방울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가늘고 긴 눈, 날카롭고 직선적인 코 및 입술의 윤곽선은 불상의 눈, 코, 입을 더욱 강조시킨다.

마지막으로 반대로 된 수인, 左拳印과 逆阿彌陀印은 두 불상을 묘사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좌권인은 ‘理와 知, 중생과 부처, 그리고 미혹함과 깨달음은 원래 하나이다’는 의미를 갖는 지권인의 변형으로, 『金剛頂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에 실린 지권인의 일반적인 형식과 반대로 양손을 결한다.⁹

⁸ 문명대, 앞의 논문, p.6; 최성은, 앞의 논문, p.220.

〈표 1〉 9세기 불상의 얼굴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이른바 지권인이란 것은, 크고 작은 손가락이 엄지를 쥐고, 頭指는 등을 보이며 기둥 세우면, 이에 金剛拳 이루어진다.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두지를 잡고, (손가락) 한 마디 심장에 대면, 이를 지권인이라 하지.’¹⁰

다시 말해 전형적인 지권인은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고 왼손의 둘째손가락만을 똑바로 세운 뒤 그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서, 오른손의 엄지가 왼손의 둘째손가락 끝에 서로 맞닿게 한다. 반면, 좌권인은 가슴 앞에 양 손을 올리고, 한 손의 손가락을 세워 다른 손으로 감싸는 방식은 같지만, 좌, 우 양손의 위치 및 역할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왼손이 아닌 오른손의 둘째손가락을 세워 이를 왼손으로 감싼다. 이 좌권인을 결한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의 비로자나불상 가

9 좌권인 도상의 연원은 무엇인지, 왜 양손을 반대로 결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새로운 불상 형식을 수용할 때 나타나는 단순한 착오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두 상의 조형적 완성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왕실과 연결된 종교적 상징물에서 이와 같은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은 적다.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로는 첫째, 『密教大辭典』의 ‘태장계의 지권인은 좌, 우 양손을 逆으로 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금강계 대일여래의 지권인이 아닌 태장계 대일여래의 좌권인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보통 태장계 대일여래는 법계정인을 결하나, 금강계 대일여래의 지권인과 닮은 좌권인을 결하여 금강계와 태장계의 간극을 줄이려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다(幹也大塚, 『沼津市・禪長寺の懸仏と左拳印の大日如来像について』, 『史迹と美術』 75 (2005), pp. 397-400). 둘째, 일본 후지산 주변에 좌권인의 상이 다수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대일여래와 동일시되는 후지산의 淺間大菩薩(あさまのおおかみ)을 조성하면서 차이를 주기 위해 대일여래의 수인 지권인을 변형시켰다고 보기도 한다(幹也大塚, 위의 논문, pp. 390-400). 마지막으로, ‘왼쪽에 惠名이 있기 때문에 결하는 수인이다’는 후대의 기록을 근거로, 깨달음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혜명’을 화엄의 깨달음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깨달음의 실천에 무게가 실려 양손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배진달, 『연화장세계의 도상학』 (일지사, 2009), pp. 131-135).

¹⁰ 『金剛頂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 권1, T19, No.957, 0321c27.

운데 대략 14점이 알려져 있다(표 2). 나아가 한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9세기 후반),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9세기 후반),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9세기 말~10세기 초)의 경우처럼 9세기 이후에 제작된 불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불국사 불상의 제작시기 추정에 훌륭한 단서가 된다(도 8, 9, 10).

〈표 2〉 통일신라시대 좌권인 불상

	작품명	재질	제작 시기	소재지
1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비로자나불입상	금동	8세기 말~9세기	원소재지 불명
2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비로자나불입상	금동	9세기	안압지 출토
3	고령 대가야박물관 소장 비로자나불좌상(머리결실)	돌	9세기	경상북도 고령
4	불국사 비로자나불좌상	금동	9세기	경상북도 경주
5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 비로자나불좌상(왼손결실)	돌	9세기	원소재지 불명
6	한산사 비로자나불좌상	돌	9세기 후반	경상남도 진주
7	물걸리 비로자나불좌상	돌	9세기 후반	강원도 홍천
8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비로자나불좌상(탑본)	돌(마애)	9세기 후반	원소재지 불명
9	죽고리 비로자나불좌상	돌	9세기 말~10세기 초	경상남도 합천
10	증심사 비로자나불좌상	철	9세기 말~10세기 초	전라남도 광주
11	대전리 비로자나불입상	돌	9세기 말~10세기 초	전라남도 구례
12	은적사 비로자나불좌상	철	9세기 말~10세기 초	전라남도 해남
13	용암사지 비로자나불좌상	돌	9세기 말~10세기 초	충청북도 청주
14	굴산사지 비로자나불좌상	돌	9세기 말~10세기 초	강원도 강릉

한편, 아미타불상의 수인은 아미타구품인 가운데 중품하생인의 변형으로 연구된 바 있다.¹¹ 중품하생인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가슴 높이로 올리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무릎까지 내린 채 양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댄 모습을 띤다. 하지만 불국사의 아미타불상이 결한 여아미

12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금동아미타불좌상의 조성과정 의미



- 도 8 한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후반, 상높이 138cm (©문화재청, 『한국의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남도 I』, 2009, p. 102)
- 도 9 물결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후반, 상높이 110cm, 홍천 대승사 (©강원향토문화연구회, 『江原文化財大觀 I: 國寶指定篇』, 2006, p. 126)
- 도 10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말~10세기 초, 상높이 90cm (©황수영, 『국보』2,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p. 84)

타인은 두 손의 위치가 완전히 반대로 표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엄지와 중지를 완전히 붙이지 않고 살짝 구부려 맞대려는 모습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불국사 상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예가 없다. 때문에 비로자나불상의 반대로 된 수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례적으로 좌, 우 양손을 반대로 결하였거나, 혹은 통일신라시대 아미타불상의 다양한 수인 가운데 특수한 형태의 설법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¹²

¹¹ 이 글에서는 아미타불상의 수인을 하품중생인, 혹은 중품하생인의 변형이라고 본 선행연구(문명대, 앞의 논문, p. 8; 배진달, 앞의 책, p. 131)를 바탕으로 반대로 된 양손의 특이성에 주목하여 ‘逆阿彌陀印’이라 칭하였다. 하지만 ‘阿彌陀九品印’이라는 용어는 일본 江戸時代に 개판된 圖像集 『佛像圖彙』에서 처음 보이며, 이전 시기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최성은, 『장보고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32(2010), p. 16, 각주 27). 때문에 최근 학계에서는 ‘아미타구품인’이라는 용어 대신 ‘설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¹² 통일신라시대 아미타불상의 수인은 매우 다양하다. 시무외·여원인 계열의 통인, 전법륜인, 촉지인, 모관찰지인(아미타정인) 등이 있으며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719-720년경)에서처럼 이례적인 모습의 설법인을 한 경우가 있다. 불국사 아미타불상의 수인에 관해서는 하품중생인, 혹은 중품하생인의 변형으로 본 견해(문명대, 앞의 논문, p. 8; 배진달, 앞의 책, p. 131), 신라하대 석탑 사방불상에서 보이는 설법인으로 본 견해(최성은, 앞의 논문, p. 220), 그리고 각주 1에서 언급하였듯이 8세기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여러 부처에게 구분 없이 사용된 통인으로 본 견해가 있다(서지민, 앞의 논문, pp. 167-172).

2. 8세기 신라화엄과 비로자나의 출현 가능성

불국사의 정확한 창건연대(742~774년경)는 두 상의 제작시기 추정에 훌륭한 단서가 된다. 사찰창건과 불상조성이 충분히 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게다가 제작시기가 확실한 8세기 비로자나불상 2건—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766),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755)—과 7~8세기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제작된 수많은 아미타불상의 선례는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 상의 형식, 양식은 8세기보다는 9세기 불상에 더 가깝다. 또한 더불어 생각해볼 것은 8세기 화엄학의 성격상 두 상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불국사의 상은 단순한 비로자나불상이 아닌 신라 왕실과 연결된, 그리고 왕경, 경주에 봉안된 비로자나불상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卷第四 義解第五 「賢瑜珈海華嚴」에는 유가승 대현(?~?, 활동 8C)이 가뭄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 無名の 화엄승 법해(?~?, 활동 8C)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경덕왕 天寶 12년(753) 계사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어 조서를 내려 (大賢을) 궁궐로 들어오게 하여 『金光經』을 강론하여서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게 하였다. 어느 날 재를 올리는데 바리를 놓아 놓고 잠시 있었으나 淨水를 바치는 것이 늦어지자 監吏가 그것을 꾸짖었다. 공양하는 사람이 말하였다. “궁궐의 우물이 말라서 먼 곳에서 길어왔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대현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어찌 일찍 말하지 않았는가?” 낮에 강론할 때에 이르러 향로를 들고 말없이 있으니 잠깐 동안 우물의 물이 솟아 나와 그 높이가 7丈 가량이 되어 刹幢과 더불어 같게 되었는데, 궁전체가 놀랐고 그로 인하여 그 우물을 金光井이라 이름 하였다.

다음해 갑오년 여름에 왕이 또 대덕 法海를 黃龍寺에 청해 『華嚴經』을 강론하게 하고, 가마를 타고 행차하여 향을 피우고 조용히 일러 말하였다. “지난여름에 대현법사가 『金光經』을 강론하

¹³ 불국사의 창건시기에 관해서는 『삼국유사』卷第五 孝善第九 「大城孝二世父母」의 '경덕왕대에 대상 대성이 천보 10년 신묘(751)에 불국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해공왕대를 지나 대력 9년 갑인(774) 12월 2일 대성이 졸하여서 국가가 마저 완성하였다는 구절이 참고가 된다(『불국사사적』(1708) 및 『불국사고금창기』(1740)에서는 창건시기를 신라 제 19대 눌지왕대, 아도화상이 창건, 신라 법흥왕 27년(528), 모후인 영제부인의 발원으로 창건되었다고 기록한다. 하지만 사료로서의 가치 및 진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지금도 그 논란은 진행 중이다). 한편 1966년 석가탑에서 수습되어 최근 판독이 일단락된 두 편의 중수문서—「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1024),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1038)—에는 (경덕)왕이 즉위한 천보 원년(742) 임오년부터 조성이라는 문구가 있어 그 시기를 약 10년 정도 앞당기고 있다.

여 우물의 물이 7척이나 솟아나왔다. 당신의 法道는 어떠한가?” 법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특히 조그만 일이니 어찌 칭찬하기 족하겠습니까. 바로 滄海를 기울여서 동약을 잠게게 하고 京師를 떠나려가게 하는 것도 또한 어려운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것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을 뿐이다. 午時에 강론을 하는데 향로를 끌어놓고 고요히 있으니 잠깐 사이에 궁중에서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나고 宮吏가 달려와서 보고하였다. “동쪽 연못이 이미 넘쳐서 內殿 50여 칸이 떠나려갔습니다.” 왕이 망연자실하니, 법해가 웃으며 말하기를 “동해가 기울고자 하여 水脈이 먼저 넘친 것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절을 하였다. 다음 날 感恩寺에서 아뢰기를 “어제 午時에 바닷물이 넘쳐서 佛殿의 섬돌 앞까지 이르렀다가 저녁 무렵에 물러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더욱 그를 믿고 공경하였다.¹⁴

위 기사는 신라의 불교가 8세기 중반 경덕왕(재위 742~765)대를 기점으로 법상에서 화엄으로 그 사상이 교체되었음을 의미한다.¹⁵ 이밖에도 화엄학승 연기(?~?, 활동 8C)가 경주 귀족의 후원으로 『화엄경』을 필사한 일, 중국에서 화엄학을 공부한 원표(?~?, 활동 8C)가 왕실의 후원으로 사찰을 창건한 일, 원성왕(재위 785~798)이 황룡사승 지해(?~?, 활동 8C)를 大內로 불러 50일 동안 『화엄경』을 강하게 한 일 등은 왕실 및 불교계 전반에 미친 화엄의 영향력을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화엄의 주존 비로자나불이 하나의 시각매체로 유행하는 시기는 훨씬 늦다. 심지어 신라 왕실과 연결된 비로자나불상은 약 100여년의 공백을 만들며 9세기 중후반 처음으로 확인되고, 왕경봉안 비로자나불상은 이보다 좀 더 늦은 861년 승복사 불상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표 3). 물론 이 공백에 관해서는 불상 혹은 관련 기록의 현전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시 화엄의 주류였던 의상(625~702) 화엄학의 독보적 위치 및 왕실과의 긴밀한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의상은 화엄학승이면서도 화엄의 願刹 부석사에 축지인의 아미타불상을 봉안하고, 일생 동안 서쪽을 등지지 않는 등 ‘아미타불’에 유독 무게를 두는 ‘실천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다(도 11).

¹⁴ 『三國遺事』卷第四 義解第五 「賢瑜珈海華嚴」.

¹⁵ 신라 중대(7세기 후반)와 하대(9세기 후반)의 불교를 화엄종과 선종으로 양분했던 기존의 견해와 달리 최연식은 8세기 중엽 경덕왕대를 기점으로 중대와 하대를 새로 구분하고, 중대를 법상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학문불교로, 하대를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종 계통의 불교로 정의하였다. 최연식,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불교학연구』12 (2005), pp.241-274; 최연식, 「표훈(表訓)의 일승세계론(一乘世界論)과 불국사·석굴암-8세기중엽 신라 화엄학 이해 서설-」, 『불교학보』70 (2015), pp.95-120.

〈표 3〉 왕실의 후원으로 조성되었거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로자나불상

	제작연대	발원자	작품명	참고자료	現傳
1	9세기 중후반경	金陽	성주사 철불	金立之撰 성주사비	×
2	839~857년경 (문성왕 1-19)	승려 秀澈 (추정)	실상사 노사나불	심원사 수철화상탑비	○
3	858년 (현안왕 2)	金滂宗 (武州長沙縣副官)	보림사 비로자나불	보림사 불상 명문	○
4	861년 (경문왕 1)	경문왕	승복사 노사나불	승복사 碑銘	×
5	862년 (경문왕 2)	승려 覺賢	장안사 비로자나불	광배 명문(現 분실), 『유점사본말사지』참고	×
6	863년경 (경문왕 3)	경문왕	동화사 비로자나불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사리호 명문	○
7	864년 (경문왕 4)	단의장 옹주 (경문왕 누이)	현계산 안락사 (現 거둔사) 장육상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비	×
8	867년경 (경문왕 7)	侍中 伊滄 金亮宗 막내딸 明端(진골)	축서사 비로자나불	축서사 삼층석탑 사리합 명문	○



- 도 11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고려, 상높이 276cm (©문화재청, 『한국의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Ⅱ-2』, 2009, p. 106)
- 도 12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8세기 후반, 상높이 223cm (©문화재청, 『한국의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Ⅰ-1』, 2009, p. 381)
- 도 13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8세기 후반~9세기 전반, 상높이 188cm (©문화재청, 『한국의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남도Ⅱ-2』, 2009, p. 469)

당시 왕실과 교류한 화엄학승 대부분은 의상계 승려들—表訓, 神琳, 順應, 決言 등—이었다. 즉, 이들은 의상의 화엄학을 전수받아 그의 신앙 체계를 그대로 답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9세기 중반, 적어도 의상 화엄학의 영향력이 유효한 시기까지는 화엄사찰 내에 비로자나불상이 아닌 축지인의 아미타불상을 봉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실제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8~9세기 존명이 불확실한 축지인의 불상들은 부석사 불상과 동일 계통, 즉 의상 화엄학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도 12, 13).¹⁶

한편, 9세기가 되면 신라왕실의 후원으로, 그리고 왕경 안에 비로자나불상이 제작, 봉안되며 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이 유행의 배경으로 경문왕(재위 861~875)의 숭불정책이 언급된 바 있으며, 경문왕이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사찰의 위치 및 종파 구분 없이 비로자나불상을 봉안했기에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해석된 바 있다.¹⁷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의상 화엄학의 정통이 왕실과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혹은 사상이 변모 되는 등 당시 화엄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가 경문왕의 불교정책과 맞물려 ‘비로자나불상의 유행’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불국사의 두 상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국사 불상의 제작 배후에는 신라 왕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왕실후원’ 혹은 ‘왕경봉안’

¹⁶ 존명이 불확실한 축지인의 상으로는 군위 석조삼존불의 본존불(7세기), 칠불암 마애삼존불의 본존불(8세기), 경주 남산 불국 보리사의 석불좌상(8세기),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8세기 후반-9세기 전반) 등이 있다. 지금까지 축지인 도상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왔는데, 초기 형태의 항마축지인으로 보는 견해(김리나, 『통일신라 시대의 항마축지인불좌상』,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91), p. 334, 342), 통인(시무외·여원인)의 변형이라고 보는 견해(강우방,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론』, 『한국미술사의 현황』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1992), p. 153), 항마축지인과 여원인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최성은,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소고-조상명문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신라사학보』 16 (2009), p. 243), 그리고 대승불교의 보편적 수인으로서 모든 부처에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견해(임영애,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문제』, 『신라문화』 47 (2016), pp. 70-73)가 있다.

¹⁷ 경문왕은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불교정책을 추진한다. 경주에 禪敎兩宗을 균등하게 융합시키고, 법상 계통 및 지방사찰에까지 세력을 넓히며 활발한 불사활동을 벌인다. 즉위 직후의 승복사 증창, 집권 후반기의 황룡사구층목탑 중수, 사찰의 종파 구분 없이 조성, 봉안된 비로자나불상 등은 모두 경문왕의 왕권강화를 위한 결과물들이었다. 경문왕의 불교정책과 비로자나불상 유행의 선후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임영애,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조명』, 『미술사학연구』 278 (2013), pp. 5-30; 경문왕대 조성된 비로자나불상으로는 ①승복사 노사나불상(861) ②장안사 비로자나불상(862) ③동화사 비로자나불상(863) ④현계산 안락사(現 거둔사)장육상(864) ⑤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865) ⑥축서사 비로자나불상(867)이 있다. 이 중 유일하게 ⑤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은 철원의 1500여명에 달하는 지방 신도들의 신앙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신라 왕실과는 무관하다. 이 6구의 상이 외에도 왕실과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경문왕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로자나불상으로는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 봉암사 철불 2구, 역성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좌우 협시보살의 대좌만 남아있는 불국사의 석조비로자나삼존불상 등이 있다. 임영애, 위의 논문, p. 11.

이라는 특이점은 경문왕대를 지나지 않고서는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경문왕대 이후 불국사에서 시행된 왕실 관련 불사 대부분은 화엄사상과 관계가 깊다(표 4). 이밖에도 불상 자체의 재료, 크기, 조형적 완성도를 놓고 보더라도 9세기 전반과 말기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완벽에 가까운 상이 조성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물론 기록의 부재로 구체적 제작시기 및 조성배경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나 경문왕대를 기점으로 한 신라 왕실과 불국사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4〉 9세기 신라왕실과 관계된 불국사 불사

번호	관련인물	시행연대	내용	出典
1	경문왕	861-875년경	·석조비로자나삼존불상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	-
2	현강왕 (경문왕 자)	893-896년경	·현강왕 妃嬪 修媛權氏 발원 ·死去한 현강왕 추복위해 광학장 강당 左壁에 비로자나·문수·보현상을 그리도록 함	최치원 撰「華嚴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菩薩讚并序」
		9세기 말	·왕비 김씨(효공왕 생모 추정) 발원 ·先考·亡兄의 명복을 빌고 벼 3000斛 시납	최치원 撰「王妃金氏奉爲先考及亡兄追福施穀願文」
		9세기 말	·왕비 김씨(효공왕 생모 추정) 발원 ·죽은 아우 추복위해 벼 1000斛 시납 ·죽은 아우가 華嚴海會로써 超克하기를 기원	최치원 撰「王妃金氏爲亡弟追福施穀願文」
3	진성여왕 (경문왕 女)	887	·현강·정강·先考·亡兄 추복위해 곡물 시납 ·圓測和尚으로 하여금 『화엄경』 강하게 함	『佛國寺古今創記』

Ⅲ.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 조합의 의미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 조합은 적어도 한국고대조각사에서 유례가 없는 새로운 도상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도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는 지금까지 확인된바 없다.¹⁸

¹⁸ 일찍이 두 상이 함께 조합된 배경에 관한 연구로는 총 3가지 논리가 피력된 바 있다. ①금강계 5불 중 당시 널리 신앙되고 있었던 대일여래와 서방 아미타불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했다는 견해. Chewon Kim and Lena Kim, *Arts of Korea*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1974), p. 77; ②7-8세기, 화엄의 主尊 아미타불과 9세기 화엄의 主尊 비로자나불을 조합하여 함께 제작하였다고 보는 견해. 문명대, 앞의 논문, p. 13; ③불국사 관련 사료에서 언급된 화엄학 승 표훈(의상의 직제자 및 화엄학승)에 주목하여 의상 미타신앙을 두 상 조합의 배경으로 보는 견해. 배진달, 앞의 책, pp. 131-143.

선행연구 성과 중 주목할 만한 견해는 불국사에 주석한 표훈(?~?, 활동 742~765)을 도상 해석의 핵심인물로 간주한 점이다. 즉, 화엄학승이면서 의상의 직제자였던 표훈이 매개체가 되어, '의상 화엄학(미타신앙)→표훈→불국사'란 공식을 성립시켰고, 이례적으로 비로자나가 아미타와 함께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훈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¹⁹ 더욱이 의상 화엄학의 핵심은 첫째, 補處菩薩 및 탑을 두지 않는 '단독의 아미타상', 둘째, '촉지인'의 수인에 있다. 다시 말해 불교미술사적 관점에서 의상 화엄학의 범주에 들기 위해선 적어도 두 가지 도상 중 한 가지는 일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 조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두 상이 제작된 9세기 화엄의 성격을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9세기 신라의 화엄은 점차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며, 선사상의 흥기, 羅末의 혼란, 그리고 종파 내부의 매너리즘이 더해져 그 세력 및 영향력의 범위가 축소되어 간다. 때문에 일찍이 李能和在 이 시기의 화엄을 저평가하고 '禪宗蔚興時代'라 정의하기도 하였다.²⁰ 물론 화엄에 가해진 충격과 위축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화엄 안에서도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교단의 결속 강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이 있었다. 화엄결사, 화엄조사 추모, 화엄학승의 전기 찬술 등이 그 대표적 활동들이다.²¹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實踐道를 제시하는데, 古典據로서 활용된 것이 799년 唐 유학승 범수(?~?, 활동 8~9c)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40華嚴經』

¹⁹ 『三國遺事』「大城孝二世父母」의 불국사 창건 설화 후반부에는 '이에 현생의 양친을 위해 佛國寺를 창건하고, 전세의 부모를 위해 石佛寺를 창건하고, 神琳, 表訓의 두 성스러운 스님을 청하여 각각 머물게 하고'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 언급된 신림과 표훈은 모두 경덕왕대 화엄학승으로 의상의 법을 이어 화엄학을 중흥시킨 인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표훈은 불국사에 상주하며 경덕왕의 후사 문제를 위해 천궁을 왕래한 점, 균여 『十句章圓通記』의 김대성과의 문답 내용을 통해 불국사 연구의 핵심인물로 간주되어 왔다. 김상현, 「新羅中代 華嚴學僧 表訓考」, 『한국고대사탐구』14 (2013), pp. 255-276; 한편, 표훈의 정체성, 즉 의상의 직제자 및 화엄학승 여부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표훈은 경덕왕대 인물로서 8세기 중후반 활동하였기에 의상의 직제자가 될 수 없으며, 표훈이 말년에 머물렀던 황복사는 유가계 사찰로서 표훈이 처음부터 화엄학승이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다. 김복순, 『義湘과 皇福寺』,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17 (1996), pp. 145-159; 김복순, 「表訓」, 『한국고대불교사 연구』(민족사, 2002), pp. 133-154.

²⁰ 李能和, 『朝鮮佛敎通史』下, pp. 5-6.

²¹ 9세기 신라 화엄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복순, 「최치원의 불교관계저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43 (1983), pp. 157-173; 조정시, 「신라시대 화엄종의 구조와 경향」, 『역사와 세계』13 (1989), pp. 37-68; 김상현, 「신라시대 화엄사상과 선사상-그 갈등과 공존-」, 『신라문화』6 (1989), pp. 85-108; 김복순, 「신라 하대 선종과 화엄종 관계의 고찰」, 『국사관논총』48 (1993), pp. 249-265.

(796)과 징관(738~839)의 『華嚴經疏』(784~787년경)라고 생각한다.²²

두 서적은 분명 화엄관련 서적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내용 가운데 일부는 ‘미혹의 고통 바다에서 중생들을 건져내어 생사를 멀리 여의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나게 되리라’, ‘바라건대 나의 목숨 마치려 할 때, 업과 미혹 모든 장애 다 없애고, 아미타부처님을 직접 만나 뵈옵고, 지체 없이 극락세계에 가서 내려네’라며 극락왕생을 명시하고, ‘나는 이때 연꽃 위에 태어나고서, 친히 무량광여래를 뵈으면, 그 자리에서 보리수기 내게 주시리’, ‘삼계 고해 빠져 있는 모든 중생들, 아미타불 극락세계 어서 가소서’라며 모순적이게도 주존불인 비로자나를 찬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미타의 구원을 외친다.²³ 나아가 징관은 『80화엄경』의 주석서인 『화엄경소』에서 비로자나와 아미타, 그리고 연화장세계와 극락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²⁴ 그의 이러한 견해는 『40화엄경』의 주석서인 『華嚴經行願品疏』(798년경)에 훨씬 적극적으로 표출된다. ‘아미타불은 곧 비로자나불이며, 연화장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기에 연화장세계가 아닌 극락에 낳는다’라며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 그리고 연화장세계와 극락세계를 완전히 동일시한다.²⁵

잘 알려진 것처럼 미타신앙은 아미타불의 本願力에 귀의함으로써 臨終時에 西方 極樂淨土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통일기 신라 사회에 급속히 뿌리내리며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 내용은 화엄사상에 비해 어렵지 않고, ‘稱名念佛’함으로써 누구나 ‘極樂往生’할 수 있다는 점은 대중과의 교섭을 용이하게 하였다. 때문에 『40화엄경』 및 『화엄경소』에서 확인되는 적극적인 미타신앙의 강조는 당시 확장되고 있던 선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즉 대중의 관심

²² 『三國遺事』卷第四 義解第五 「勝詮髑體」의 ‘그 뒤 승려 梵修가 멀리 당나라에 가서 새로 번역된 『後分華嚴經』과 『觀師義疏』를 구해 돌아와서 널리 전하였으니, 貞元 己卯(799)이었다. 이 또한 불법을 구해 널리 퍼뜨린 예일 것이다(後有僧梵修 遠適彼國 求得新譯後分華嚴經觀師義疏 言還流演 時當貞元己卯 斯亦求法洪揚之流乎)’ 구절은 두 책의 유입 시기 확인에 참고가 된다; 『40화엄경』은 796년 般若多羅三藏에 의해 한역된 화엄의 소의 경전이다. 原題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서 알 수 있듯이 ‘해탈의 경계인 법계에 悟入하기 위한 보현의 行과 願을 여는 것’이 큰 주제이다. 經은 크게 두 品으로 구성되는데, 『60·80화엄경』 「入法界品」, 즉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에 의해 菩提心을 내어 여러 선지식을 친견하고 구도행각을 설한 부분과 「普賢行願品」, 즉 보현보살의 十大願과 62偈頌을 읊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엄경소』는 청량 징관이 지은 『80화엄경』의 주석서이다. 징관은 선종을 화엄의 교학체계에 내어 포용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된다. 『화엄경소』에는 화엄학을 분류로 한 教禪一致의 입장에서 선종을 향한 징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²³ 『大方廣佛華嚴經』 권40, T10, No. 293,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0846a29, 0846c29.

²⁴ 『大方廣佛華嚴經疏』 권60, T35, No. 1735, 0955b23.

²⁵ 『華嚴經行願品疏』 권10, X5, No. 227, 0198a09.; 金知見, 「新羅華嚴學的 系譜와 思想」,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12 (1973), pp. 55-56.

을 얻기 위한 화엄종 내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이었을 것이다.²⁶

그렇다면 799년 국내로 유입된 두 서적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結華嚴經社會願文』(886~887년경)에는 해인사에서 『40화엄경』을 사경하고, 1년에 2차례 모여 이를 읽는 결사를 맺은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²⁷ 또한 해인사에서 여생을 보낸 최치원(857~951)의 글에는 징관의 저술이 적극 인용되고 있다.²⁸

慶曆 丙午年(886) 7月 5일에 현강대왕께서 昇遐하심에[宮車晏駕] 재상가[台庭]의 중후한 덕망을 지닌 분들과 宗室의 懿親들이 서로 함께 명복을 받들고자 화엄경 두 부를 이룩한 뒤, 장차 妙願을 아뢰고자 이에 이 글을 짓습니다 … 侍書 중에서 필법이 매우 기묘한 이를 선택하여 『華嚴經』 『世間淨眼品』第一을 쓰도록 명하시었습니다. 이에 上宰 舒發韓金公林甫와 國戚重臣 蘇判金一順憲 등은 義熙本 華嚴經을 베껴 쓰고, 또 國統과 僧錄 등이 있어서 貞元의 새 경을 베껴 썼습니다. 北宮長公主가 이 말을 듣고 이에 청정한 재물을 희사하여 表具와 두루말이를 잘 꾸미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삼으셨습니다 … 못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일치되어 1년에 두 번씩 모임을 갖기로 약속하고 陵寢 북쪽의 절에 모여 百篇의 眞詮(華嚴經)을 轉讀하기로 하였습니다.²⁹

해인사는 802년(애장왕 3) 창건초기부터 聖穆太后的 도움을 시작으로 현강왕, 진성여왕의 토지 寄進, 선왕 추복을 위한 화엄결사의 시행 등 지속적으로 왕실의 후원을 받던 사찰이다. 교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舊·新譯 화엄경뿐만 아니라 『40화엄경』과 징관의 『화엄경소』를 받아들여 사상적 진보를 이루어 9세기 후반에는 화엄의 주요 사찰로 자리 잡은 듯하다. 결국, 9세기 해인사의 위치가 화엄의 중심도량과 같았고, 왕실과 깊은 緣을 맺었던 점을 상기해보면 그 파급력

26 두 책이 번역, 저술된 목적은 신라가 두 책을 유포, 수용한 연유와 다를 것이 없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安史의 亂(755-763) 이후 신흥세력으로 등장한 절도사 계층의 후원으로 실천 불교로서의 선법이 흥기한다. 반면 교학 불교는 지나친 현학성으로 그 세력 및 영향력이 축소되어 教禪一致라는 현실적 측면, 즉 선사상에서 강조하는 '실천성'을 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두 서적에는 '실천성'을 지향하는 요소가 눈에 띄게 등장한다. 결국 화엄종 내에서 선사상의 대두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실천적 교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7 구체적인 寺名 없이 陵寢北寺라고만 적혀있어 결사 장소에 관해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해인사 승려 현준(?-?, 활동 9C)이 참여한 점, 원문 속 北宮長公主는 진성여왕을 가리키며 그로 인해 해인사를 北宮海印藪라고 부르는 점, 현강왕이 해인사에 대토지를 기진한 점 등은 陵寢北寺가 海印寺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김복순, 『新羅華嚴宗研究』(민족사, 1990), p. 87.

28 김복순, 위의 책, pp. 132-133.

29 「上宰國戚大臣等奉爲獻康大王結華嚴經社願文」, 『圓宗文類』22 『韓國佛敎全書』4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p. 646.

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³⁰ 나아가 불상조성에 있어서도 두 서적의 개념 및 내용의 일부가 도상의 본으로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다시 말해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 조합’도상은 9세기 화엄이 제시한 구체적 실천도인 ‘미타신앙’ 및 ‘舍那彌陀一切, 華藏極樂一切’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9세기 최치원의 불국사 관련 찬문에는 불국사를 ‘華嚴佛國’이라 기록하고 있다.³¹ 또한 9세기 불국사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불사는 화엄과 관계되며, 불화, 불상 제작, 先考 및 亡兄 추복, 화엄경 강론 등 그 활동의 폭이 꽤 넓다. 당시 불국사에 총 3기의 비로자나불상—금동비로자나불좌상(9세기 중후반경), 석조비로자나삼존불상(9세기 중후반경), 비로자나삼존불화(893~896년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 또한 9세기 불국사에 미친 화엄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준다. 물론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불국사의 정확한 사상적 경향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최치원이 ‘華嚴佛國寺阿彌陀佛像讚并序’ 말미에 남긴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³²

복된 터전(불국사)을 돌아보면서, 이에 頌을 짓는다.
 동해의 동쪽 산기슭에 정법이 안주할 절이 있는데 (東海東山有住寺)
 화엄불국, 네 글자로 이름 지었네. (華嚴佛國爲名字)
 … (중략) …
 화엄에 눈을 부처 연화장세계를 바라보며 (華嚴寓目瞻蓮藏)
 불국에 마음을 달리니 아미타정토가 연결되었네. (佛國馳心係安養)

³⁰ 9세기 해인사에 관해서는 최원식, 『新羅 下代の 海印寺와 華嚴宗』, 『한국사연구』49 (1985), pp. 1-25;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신라문화』28 (2006), pp. 235-254.

³¹ 최치원 撰 총 6종의 불국사 관련 자료에 관한 연구로는 김상현, 『불국사의 문헌자료 검토』, 『신라의 사상과 문화』 (서울: 일지사, 1999); 이문기, 『崔致遠 撰 9세기 후반 佛國寺 關聯資料의 檢討』, 『신라문화』26 (2005); 최영성, 『崔致遠撰『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像讚』·『佛國寺阿彌陀佛像讚』과 불국사 金銅毘盧遮那如來坐像·金銅阿彌陀如來坐像의 關係再論』, 『한국철학논집』20 (2007); 불국사의 사상 및 교리에 관해선 다양한 연구가 있다. ①法華: 閔泳珪, 『石窟庵 彫刻의 敎理背景』, 『考古美術』4 (1960) ②華嚴: 金相鉉, 『石佛寺 및 佛國寺에 表出된 華嚴世界』, 『新羅華嚴思想史 研究』(서울: 민족사, 1991); 강우방, 『佛國寺 建築의 宗教的 象徵構造』,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 論文集』18 (1997) ③華嚴·密敎: 申賢淑, 『慶州 石窟庵과 佛國寺의 思想的 背景』, 『傳統文化』141 (1984); 배진달, 『佛國寺 石塔에 구현된 蓮華藏世界: 釋迦塔·多寶塔의 명칭과 관련하여』, 『시각문화의 進통과 해석: 靜齋 金理那 敎授 政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서울: 예경, 2007) ④華嚴·密敎·唯識: 高翊晉, 『한국고대불교사상』(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⑤法相: 김복순, 『신라화엄종연구』(서울: 민족사, 1990).

³² 물론 『華嚴佛國寺阿彌陀佛像讚并序』은 불국사 譚舍(講室) 西壁에 그린 아미타불화를 찬한 글이다. 따라서 두 불상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그 내용 중 일부는 9세기 불국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당시 불국사의 신앙 확인에 는 참고가 된다.



도 14 비로사 석조비로자나·아미타불좌상, 9세기, 상높이(向左)118cm, (向右) 114cm (©문화재청, 『한국의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Ⅱ-2』, 2009, p. 131)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 불국사에 투영된 9세기 화엄이 지향했던 ‘미타신앙’과 ‘舍那彌陀一切, 華藏極樂一切’의 개념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국사 두 불상의 제작 배후에는 신라왕실이 있었다. 왕실의 입장에서 새로 유입된 서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상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교류 관계에 있었던 사찰, 해인사를 중심으로 유포된 개념이라면 무리 없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불국사 상을 제외한 유일한 조합의 예, 비로사 불상의 경우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왕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도 14). 그러나 비로사가 위치한 영주 일대가 한반도의 길목으로서 신라 왕실의 지속적인 관심에 놓여있었던 점, 때문에 삼국 시대부터 수많은 불상이 조성된 점, 929년경 신라귀족 진공대사(855~937)가 파견된 점, 그리고 경순왕(재위 927~935)의 사적비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비로사의 두 불상이 신라 왕실과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³³

³³ 비로사 두 불상에 관한 연구로는 문명대, 「毘盧寺 石造毘盧 阿彌陀二佛像의 考察」, 『美術史學研究』 136·137 (1998), pp. 126-133; 이숙희, 「비로사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에 관한 연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靜齊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서울: 예경, 2007), pp. 157-174; 비로사와 왕실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2003년 동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고구려·신라문화의 접점, 영주』(동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03); 노대환, 「毘盧寺 眞空大師普法塔碑片 발굴과 그 내용」, 『목간과 문자』 2 (2008), pp. 205-222; 정동락, 「진공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pp. 5-40.

IV. 맺음말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 불국사 금동불상의 조성시기와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 조합’이라는 이례적인 도상 출현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긴 이등변삼각형의 신체비례, 얼굴의 양감 및 耳目口鼻의 과장, 반대로 된 수인 등 두 상의 형식과 양식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이 8세기에 제작된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왕실과 연결된, 그리고 왕경(경주)에 봉안된 비로자나불’이라는 특이성은 8세기 유행했던 의상계 화엄학과 공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상이 9세기 중반에서 후반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상 화엄학은 유독 아미타불에 무게를 두며, 또한 도상학적으로 단독의 아미타상 및 축지인의 수인을 특징으로 한다. 8~9세기 왕경, 경주를 중심으로 제작된 존명불명의 축지인 불좌상, 그리고 9세기 비로자나불상의 유행은 모두 직, 간접적으로 의상 화엄학의 성, 쇠가 나은 결과라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 조합’ 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9세기 화엄이 지향했던 구체적 실천도인 ‘미타신앙’이 있었으며, 799년 유학승 범수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40華嚴經』과 징관 『華嚴經疏』의 내용을 그 근거로 삼았다. 두 서적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편찬되었지만 모순적이게도 서방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소원하고, 나아가 비로자나와 아미타, 연화장세계와 극락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9세기 화엄의 중심도량, 해인사를 통해 유포되며, 그 결과 불상 조성에까지 영향을 미쳐 비로자나가 아미타와 함께 제작되는 이례적인 도상이 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계율에 충실하고 기존 전통에 대해 보수성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때문에 진보적이고 이례적인 변화는 강력한 후원세력 없이는 실현이 쉽지 않다. 왕실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9세기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세력은 신라 왕실이었을 것이다. 또한 새로 유입된 서적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도상을 시도해보는 일은 왕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요컨대,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금동아미타불좌상은 9세기 화엄의 실천적 측면을 불상 조성으로 구체화시킨 현전하는 사례이며, 불국사에서 새로운 도상을 가장 먼저 차용하여 실험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 words)_ 불국사(佛國寺, Bulguksa Temple), 통일기 신라(統一期 新羅, Unified Silla),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Vairocana), 40화엄경(40華嚴經, 40-fascicle *Avatamsaka Sūtra*), 경문왕(景文王, King Gyeongmun), 지권인(智拳印, BodhaŚrī-mudrā)

■ 투고일 2018년 11월 27일 | 심사게시일 2017년 12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8년 4월 12일 ■

참고문헌

1. 사료

『金剛頂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 T19, No. 957.

『大方廣佛華嚴經』, T10, No. 293.

『大方廣佛華嚴經疏』, T35, No. 1735.

『불국사고금창기』.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

『불국사사적』.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三國遺事』.

『上宰國戚大臣等奉爲獻康大王結華嚴經社願文』, 『圓宗文類』 22.

『朝鮮佛教通史』.

『華嚴經行願品疏』, X5, No. 227.

2. 한국어 문헌

강건우, 『실상사 철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강우방,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론』, 『한국미술사의 현황』,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1992.

_____, 『한국비로자나불상의 성립과 전개-원용의 도상적 실현-』, 『미술자료』 44, 1989.

高裕燮, 『高裕燮全集』 2, 통문관, 1993.

郭東錫, 『금동불』, 예경, 2000.

關野貞, 姜奉辰 역, 『韓國의 建築과 藝術: 東京帝國大學 韓國建築調査報告』, 서울: 産業圖書出版社, 1990.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석가탑 유물2: 重修文書』,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2009.

김리나, 『통일신라시대의 향마촉지인불좌상』,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91.

김리나·이숙희, 『統一新羅時代 智拳印 毘盧遮那佛像 研究의 爭點과 問題』, 『미술사논단』 7, 1998.

김복순, 『新羅中代 華嚴學僧 表訓考』, 『한국고대사탐구』 14, 2013.

_____, 『신라 하대 선종과 화엄종 관계의 고찰』, 『국사관논총』 48, 1993.

_____, 『新羅華嚴宗研究』, 민족사, 1990.

_____, 『義湘과 皇福寺』,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17, 1996.

_____, 『최치원의 불교관계저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43, 1983.

_____, 『表訓』, 『한국고대불교사연구』, 민족사, 2002.

-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신라문화』 28, 2006.
- _____, 『石佛寺 및 佛國寺의 研究—그 創建과 思想的 背景—』, 『불교연구』 2, 1986.
- _____, 『石佛寺 및 佛國寺에 表出된 華嚴世界觀』,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1991.
- _____, 『신라의 사상과 문화』, 서울: 일지사, 1999.
- _____, 『신라하대 화엄사상과 선사상—그 갈등과 공존—』, 『신라문화』 6, 1989.
- _____,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1991.
- 金元龍, 『한국미술사』, 汎文社, 1968.
- 金知見, 『新羅華嚴學의 系譜와 思想』,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12, 1973.
- 남동신, 『천궁(天宮)으로서의 석굴암(石窟庵)』, 『미술사와 시각문화』 13, 2014.
- 南天祐, 『石佛寺』, 一潮閣, 1991.
- 노대환, 『毘盧寺 真空大師普法塔碑片 발굴과 그 내용』, 『목간과 문자』 2, 2008.
- 동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 『2003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고구려·신라문화의 접점』, 영주, 2003.
- 문명대, 『佛國寺 金銅如來坐像二軀와 그 造像讚文(碑銘)의 研究』, 『미술자료』 19, 1976.
- _____, 『毘盧寺 石造毘盧 阿彌陀二佛像의 考察』, 『美術史學研究』 136·137, 1998.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 閔泳珪, 『石窟庵彫像의 教理背景』, 『고고미술』 4, 1961.
- 박성연,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3.
- 배진달, 『연화장세계의 도상학』, 일지사, 2009.
- 서지민, 『통일신라시대 화엄계 불상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 李基白, 『古代 政治思想』, 『韓國思想大系』 Ⅲ,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9.
- 이문기, 『崔致遠撰 9세기 후반 佛國寺 關聯資料의 檢討』, 『신라문화』 26, 2005.
- 이숙희, 『비로사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에 관한 연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 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서울: 예경, 2007.
- _____,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미술사학연구』 250·251, 2006.
- 이행구, 『화엄경에 나타난 정도신앙』, 『불교학보』 26, 1989.
- 이혜림, 『榮州 浮石寺 塑造阿彌陀佛坐像 研究』,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 임영애,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조명』, 『미술사학연구』 278, 2013.
- _____,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문제』, 『신라문화』 47, 2016.
- 張忠植, 『韓國佛敎美術의 密敎的 要素』, 『韓國密敎思想研究』, 동국대학교출판부, 1986.
- 정병삼, 『義湘의 彌陀信仰과 그 社會的 性格』, 『한국불교학』 16, 1991.
- _____, 『의상의 화엄사상과 통일기 신라사회』, 『불교학연구』 1, 2000.
- 정부미, 『栢栗寺 金銅如來立像을 통해서 본 통일신라시대 대형 금동불 製作技法』, 『미술사학연구』 255, 2007.
- 정동락, 『진공의 생애과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 조경시, 「신라하대 화엄종의 구조와 경향」, 『역사와 세계』 13, 1989.
- 조범환, 「신라하대 경문왕의 불교정책」, 『신라문화』 16, 1999.
- 朝鮮總督府編, 조원영 역, 『佛國寺와石窟庵』, 민족문화, 2004.
- 秦弘燮, 『韓國의佛像』, 一志社, 1976.
- 최성은, 「나팔려초 아미타불상의 圖像的 고찰」, 『강좌미술사』 26, 2006.
- _____, 「장보고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32, 2010.
- _____, 「장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소고-조상명문과 증대신라 불교조각」, 『신라사학보』 16, 2009.
- 최연식, 「釋迦拈발견 墨書紙片의 내용을 통해 본 高麗時代 佛國寺의 현황과 운영」, 『불교학보』 61, 2012.
- _____,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불교학연구』 12, 2005.
- _____, 「표훈(表訓)의 일승세계론(一乘世界論)과 불국사·석굴암-8세기중엽 신라 화엄학 이해 서설-」, 『불교학보』 70, 2015.
- 최영성, 「崔致遠撰『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像讚』·『佛國寺阿彌陀佛像讚』과 불국사 金銅毘盧遮那如來坐像·金銅阿彌陀如來坐像의 關係再論」, 『한국철학논집』 20, 2007.
- 최원식, 「新羅 下代의 海印寺와 華嚴宗」, 『한국사연구』 49, 1985.
- 최치원, 최영성 역, 『(譯註) 崔致遠全集』,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8.
- 황수영, 『불국사와 석굴암』,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3. 동양어 문헌

- 幹也大塚, 「沼津市・禪長寺の懸仏と左拳印の大日如来像について」, 『史迹と美術』 75, 2005.
- 關野貞,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大, 1904.

4. 서양어 문헌

- Chewon Kim and Lena Kim, *Arts of Korea*,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1974.

국문초록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금동아미타불좌상은 비로자나와 아미타가 한 쌍으로 조성된 이례적인 조합을 보인다. 손 모양에 있어서도 지권인, 아미타인의 전형과 반대로 양손을 결하고 있다. 때문에 비슷한 시기의 다른 불상들과 차별성을 보이며, 동시에 한국 불교미술의 특수성을 대표한다. 하지만 이를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조성시기에 관해서도 여전히 연구자 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먼저 두 상의 조성시기를 검토한 후, 왜 비로자나와 아미타가 한 쌍으로 조합되었는지, 이 이례적인 도상 출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작 당시 신앙의 형태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조성 시기는 9세기 중반에서 후반 무렵으로 결론하였다. 형식 및 양식—긴 이등변삼각형의 신체비례, 얼굴의 양감 및 耳目口鼻의 과장, 반대로 된 수인—이 9세기 불상과 유사할 뿐 아니라, ‘왕실과 연결된, 그리고 왕경(경주)에 봉안된 비로자나불’이라는 특이성은 8세기 유행했던 의상계 화엄학과 공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라의 불교는 8세기 중반 경덕왕대를 기점으로 법상에서 화엄으로 그 사상이 교체된다. 하지만 주존 비로자나불이 하나의 시각매체로 유행하는 시기는 훨씬 늦다. 특히 신라 왕실과 연결된 비로자나불상은 약 100여년의 공백을 만들며 9세기 중후반 처음으로 확인되고, 왕경봉안 비로자나불상은 이보다 좀 더 늦은 861년 승복사 불상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 공백은 당시 화엄의 주류였던 의상 화엄학의 독보적 위치 및 왕실과의 긴밀한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의상은 화엄학승이면서도 화엄의 願刹 부석사에 축지인의 아미타불상을 봉안하고, 일생 동안 서쪽을 등지지 않는 등 ‘아미타불에 유독 무게를 두는 ‘실천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영향력이 유효한 시기, 적어도 9세기 중반까지는 의상의 특이성이 그대로 답습되어 화엄사찰에 비로자나불상이 아닌 아미타불상이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 조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두 상이 제작된 9세기 화엄의 성격을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9세기 신라의 화엄은 선사상의 흥기, 羅末의 혼란, 그리고 종파 내부의 매너리즘이 더해져 교학적인 면에서 일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대중과의 거리는 화엄학승들로 하여금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도를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필자는 이 변화의 구심점으로 9세기 말 화엄의 중심 도량으로 성장하는 ‘해인사’의 성격에 주목하였고, 해인사를 중심으로 유포, 확장된 다음의 두 서적이 그 변화의 典據로서 역할 하였다고 보았다. 799년 唐 유학승 梵修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40華嚴經』, 그리고 澄觀의 『華嚴經疏』는 분명 화엄관련 서적이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서방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소원하고, 나아가 비로자나와 아미타, 연화장세계와 극락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결국 9세기 화엄이 제시한 구체적 실천도는 ‘稱名念佛’함으로써 ‘極樂往生’할 수 있다는 ‘미타신앙’인 셈이며, 불국사의 두 상은 이를 형상으로 구체화시킨 현전하는 실례라 볼 수 있다.

Abstract

Implication of the Seated Gilt-Bronze Vairocana Buddha and the Seated Gilt-Bronze Amitabha Buddha of Bulguksa Temple

Chung, Jin young*

The seated gilt-bronze Vairocana Buddha and the seated gilt-bronze Amitabha Buddha of Bulguksa Temple are a unique combination as a pair. They both have peculiar mudras using opposite sides of their hands in contrast to the conventional hand gesture: holding the right index finger instead of the left for the Vairocana Buddha or raising the left hand instead of the right for the Amitabha Buddha. This not only differentiates them from other contemporaneous Buddhist statues but also represents the uniqueness of Buddhist art history in Korea.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about them, and their production date is a point of argument among researchers.

This article obtains two objectives. After first reviewing their production dates, I examined them based on why the Vairocana Buddha statue and the Amitabha Buddha were paired up and why this peculiar iconography emerged, based on the religious thoughts.

I conclude that their production period is from the mid- to late 9th century. This is not only because they are similar in style—physical proportion similar to an elongated isosceles triangle, volumes of the face, exaggerated features on face, and the reversed hand gesture—to the Buddhist statues from the 9th century but also because the peculiarity of being a Vairocana Buddha, which is connected to the royals and enshrined in their capital (Gyeongju), cannot coexist with the Hwaom thought of the Uisang lineage. As widely known, Buddhism in the Unified Silla period shifted from Beopsang (Ch. Faxiang, Sk. Yogācāra) School to Hwaom (Ch. Huayan) School in the 8th

* M.A., EwhaEwha Woman's University

century during King Gyeongdeok's reign. However, it was much later when the Vairocana Buddha iconography became one of the popular visual representations. In particular, the Vairocana Buddha statue related to the Silla royals was first produced in the mid- to late 9th century after a gap of one hundred years. Moreover, the statue of Vairocana Buddha enshrined in the capital first appeared a bit later, in 861, at the Sungboksa Temple. This timely gap is easily understood by the fact that the Hwaecom School of the Uisang lineage, which was a leading school of Hwaecom, enjoyed peerless authority and also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alace. In other words, even though Uisang himself followed Hwaecom thought, he actually enshrined the Amitabha Buddha statue with the bhumisparsha mudra to the Buseoksa Temple, which was given royal patronage, and he never turned his back on the west, which signified his reserved attitude toward the Amitabha Buddha. This implies that, as long as he was active, at least until the mid-9th century, his preference for the Amitabha Buddha would have been kept, resulting in enshrining not only Vairocana Buddha but also Amitabha in temples oriented to the Hwaecom School.

If so, how can one explain the rather peculiar combination of the Vairocana Buddha and the Amitabha Buddha?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Hwaecom thought in detail when these two statues were sculpted in the 9th century. Circumstances, such as the rise of the Seon (or Zen), political turmoil toward the end of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mannerisms among the monks of the Hwaecom School, required inevitable changes in the Hwaecom School. Rather than maintaining a remote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the monks of the Hwaecom School started suggesting a realistic way of practicing the religious thoughts for whoever wanted to pursue them. I therefore focus on the expanding influence of the Haeinsa Temple toward becoming a central temple of the Hwaecom at the end of the 9th century and the important role it played regarding this change. I also argue that the following two publications, which were distributed from Haeinsa Temple, show compelling evidence for such a change. The first is the forty-fascicles *Avatamsaka Sūtra*, which was introduced to Korea in 799 by Beomsu, a monk who had been studied under Tang; and the other is *Treatise on the Avatamsaka Sūtra* by Jinggwan. Both texts are pertinent to Hwaecom. However, ironically, they both emphasize not only one's rebirth to the Western Pure Land but also the fact that the Western Pure Land is no different from the Land of the Lotus Flower of Vairocana. Consequently, the detailed method of practice proposed by the 9th century's Hwaecom equals to the Amitabha faith: "By chanting Amitabha's name, one will be reborn in the Western Pure Land." The two statues in Bulguksa, therefore, are visual representations of this thought.